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음 11월 30일) 제19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중소기업에 활력 불어넣는다

도, 올 마케팅지원 계획 수립

인증상품기업 매출 3800억
수출 65억불 등이 목표
수출 단계별 기업 자율선택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전북도는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2018 국내의 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국내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인증상품기업 매출액 3,800억원, 수출 65억불,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3%(달성)을 올해 사업 목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상품의 국내마케팅 활성화, 도시인인증상품육성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판로 확대를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역량 강화, 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및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등 6개의 세부 실행과제도 추진한다.

올해 국내의 마케팅 지원사업은 46억9000만원 규모로 1,800개사(국내 800, 해외 1,000)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코트라지원단 등 9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21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내용은?

1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이 전년대비 5.6% 증액된 총 21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추진내용 및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센터간의 정보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국내 마케팅은 화장품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제품군이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해외마케팅은 수출 단계별 수요기업

의 자율선택형 사업을 확대하고 박람회 등 해외출장 지원사업의 편중지원을 방지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내

외 통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키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인증, 국내의 신규시장 개척 등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가균형발전 실현 소통 창구 될 것”

김승수 전주시장, 대통령 직속 지방위 위원 위촉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쟁기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시장을 비롯한 호남지역 지자체장과 민간위원 등 12명을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북지역 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호남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김시장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공약과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와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돕는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김 시장이 특별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할당제 △혁신도시 정주 여건조성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연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김 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

주철현 여수시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 산하 호남비전연구위원회와의 연대를 제안했으며 일자리 중심의 호남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 대표는 이날 호남특별위원으로 위촉된 지자체장의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으로 담이 함께 할 것”이라며 “일자리 중심으로 인프라보다는 지자체의 체질 개선과 혁신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하며 2월 또는 3월 초에 지역 순회 시 일지리를 늘리기 위한 세미나 등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된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위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돕고 국민 참여와 지역협력, 홍보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도 맡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하고 챙기면서 어느 때보다 균형발전과 분권, 사람 중심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 시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의 행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민들과 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을 대표해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지역이 모두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인플루엔자 환자수 급증 “예방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전주시보건소 주의 당부 미접종자 예방접종도 권유

전주시 보건소(소장 장병호)는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외래환자 1,000명당 7.7명)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1달 만에 71.8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권유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올해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 연령에서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12세(외래환자 1,000명당 144.8명), 13~18세(외래환자 1,000명당 121.8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병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매일 INDEX
3면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신당 창당 의지 '확고부동'

국립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